



정교회주보

제2565호

2026년 2월 22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를 거쳐 가는 고대 로마 도로

(사순절 전 주일)
용서 주일

한국 선교사들을 기억하는 주일
성 탈라시오스 수도자
(제4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전 주일 시기송 220
 - 사도경 : 로마 13,11~14,4 (봉) 441
 - 복음경 : 마태오 6,14~21 13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8회] 안수와 파송

(사도행전 13,1-4 참조)

성령의 세밀한 일깨움이 공동체의 중심에 잔잔히 퍼져 나갔을 때,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다. 바르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응답했다. 간절한 간구와 자기 비움 속에서 분별된 그 부르심이 이제 실제 여정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바르나바와 사울, 루기오, 마나엔 등 여러 지역과 배경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절제된 생활 속에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았다. 그때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 놓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즉시 순종하여 다시 정성스럽게 마음을 모아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께 의

지하여 그들을 파견하였다. 이 안수는 단순한 직책의 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하느님의 사명을 위탁하는 거룩한 파송이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류기아로 내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로 향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도적 여정의 첫걸음이 이처럼 시작되었다.

2026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거룩한 대 사순절 메시지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세계 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와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용서가 온 교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지극히 존경하는 형제 주교들과 축복받은 자녀 여러분,

거룩한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올해에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고 대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이는 영적 투쟁의 경기장이며, 금식과 회개의 시기요, 겸손과 기도의 시간이며,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형제 사랑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파스카로 인도하며, 인류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줍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복된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수행'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것이 교회의 성찬적 실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표현과 차원에 있어 부활의 빛과 기쁨으로 환히 비추어집니다. 수덕주의(Asceticism)의 정신은 결코 그리스도교에 외래적으로 첨가된 것이 아니며, 교회 밖의 이원론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영적 수행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이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스도께 봉헌된 삶에서 솟아나는 끝없는 영적 기쁨, 자기 초월과 자기 헌신, 자선적 사랑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연결합니다

영적 수행은 자의적인 선택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규범과 그 '보편적 체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영적 수행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교회적'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회개와 기도, 겸손과 용서, 금식과 선행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교회 전통 안에는 영적 수행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한 수행은 언제나 개인적 노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지고, 자기 의로움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 사순절은 교회를, 하느님 은총의 선물들이 드러나는 장소이자 방식으로 체험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머릿돌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희망"(1베드로 3,15)의 빛나는 지평이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감동 안에서, 유식(乳食)주간 토요일에, 수행으로써 빛난 거룩한 금욕가 남녀 성인들을 기립합니다. 이들은 영적 수행의 긴 경주에 나선 신자들의 조력자요, 동반자입니다. 영적 투쟁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선하신 도움을 얻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성인들

과 신앙의 순교자들의 중보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교적 수덕주의는, 영적·정신적·육체적 통일체로서의 온전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질과 육체를 폄하하지 않으며, 영성을 마니교적으로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적 수행은 궁극적으로 “몸에 맞서는 투쟁이 아니라, 몸을 위한 투쟁”입니다. 이는 『게론티콘(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의 다음과 같은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몸을 죽이라고 배운 것이 아니라, 정욕(욕망)을 죽이라고 배웠다.”

안타깝고 부당하게도, 일부 현대 사상가들은 그리스도교적 수덕주의를 삶의 기쁨을 부정하는 태도, 인간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것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평가는 없습니다. 영적 수행은 ‘소유함’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특히 자아로부터, 곧 ‘자기 것만을 구하는 태도’와 ‘우리 존재를 소유로 규정하려는 방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참된 자유의 원천이자 그 실현입니다.

‘개인적 권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한 개방성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내면의 ‘선한 변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굳건히 실천하는 삶보다 더 진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식이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태도로서, 교회의 금욕적이고 성찬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것일 때, 또한 그것이 ‘개인적 위업’이 아

니라 ‘공동의 영적 훈련’이 될 때, 그보다 더 창조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 회개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강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회개는 진리를 향한 생명의 방향 전환이며, 하느님 은총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깊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새롭게 발견하는 내적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금식과 회개의 기간은 결코 침울한 시간이 아니라, 기쁜 시간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가는 이를 ‘금식의 봄’이라 노래하며, 교회의 신학은 대 사순절을 ‘영적 봄’이자 ‘기쁨과 빛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현대의 인간학적 혼란 앞에서, 또 현대 문명에서 비롯된 새로운 소외 현상 앞에서 더욱 특별한 시의성과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세계 총대주교청 소속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올해 성모 기립 찬양의 날(3월 27일)에는, 서기 626년 콘스탄티노플이 위태로운 포위로부터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블라헤르나 성모님 성당에서 ‘서서’ 봉헌되었던 성모 기립 찬양의 1400주년(626-2026) 기념 경축이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금식의 경주를 영적 수행과 인내 가운데, 또 감사와 찬양 속에서 순조롭게 완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거룩한 대 사순절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느님께 열렬히 간청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2/25)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2/27) 오후 6시 제 1 성모 기립 찬양 (각 성당 예배는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수요일 오후 5시
- 금요일 오전 9시



■ 참회의 만과 안내

오늘 오후에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례합니다.

■ 정교주일 성상 준비하세요

다음 주일(3월 1일)은 정교 주일로서 성상 행렬이 있습니다. 성상을 각자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합니다.

알림

■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내일(2월 23일, 정결 월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금식과 기도와 예배 참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 투쟁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특히, 주중에 거행되는 예배에 많이 참례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비잔틴 성화 세미나 안내

우리 대교구에서는 그리스 성화작가인 소조스 야누디스 교수를 초빙하여 따디안나 서미경 성화작가와 함께 비잔틴 성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전공자,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초급 및 고급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장소: 한국 정교회 대교구

-기간: 6월 1일-30일 /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수강료: 2,000,000원

-수강 등록: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요청사항 등을 기재하여 대교구 메일(orthodoxkorea@gmail.com)로 3/20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유지재단)

자세한 사항은 대교구 사무실(02-362-6371 또는 010-3088-8878 또는 상기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15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 성사를 받고 4명의 예비 교인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세례자: 유가이 에브게니, 티안 티물, 김 마리아(유아), 김 에브게니(유아)

영성의 샘터



하느님의 선하심을 구하라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이나 유혹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형제에게 모세 사부가 대답했다.

“울면서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달려가 네 영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움을 구하고 외쳐라. 하느님께서서는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을 부르는 이들 곁에 계실 것이다.”